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6. 6. 18.(목)

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...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본격 시행

【관련 국정과제】 31. 미래 모빌리티와 ‘K-AI 시티’ 실현

-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 부여
- 기술개발 목적 외 원본 영상정보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과 하위법령인 시행령,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.

□ 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,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*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.

*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.6% 개선(가명정보 31.2 → 원본정보 36.7)

○ 특히, 보행자의 시선, 표정,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,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.

○ 다만,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,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에 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”면서,

○ “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혁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임채현 (044-201-4146)
			주무관	장은희 (044-201-3854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국민이 만든
대전환의 길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